

戰死경찰관 전국 합동 위령제 개최

— 故人들의 넋 추모하고 국가안보 意志 다져 —



추념사를 하고 있는 문학동 참전경찰회장

戰死경찰관 전국 합동 위령제가 지난 9월 27일 오후 2시 지리산 뱀사골 충훈각에서 문학동 참전경찰유공자회장, 구홍일 경우회장, 내외 귀빈 및 유가족, 전현직 경우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어 故人들의 넋을 추모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행사는 식순에 따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이어 조총이 발사되었고, 현악 분향과 현화 분향이 시작되자 고인들에게 술잔을 올리고 꽃을 바침으로서 애도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문학동 회장은 추념사를 통해 『이 곳에 봉안된 7,344위의 호국영령들 앞에 엄숙히 머리 숙여 추념사를 올리며 단장의 아픔을 억누르며 영혼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대한민국 건국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선대들의 역적같은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고, 경제적 발전을 거듭해 세계속의 한국으로 올라섰지만, 불행하게도 38선이 엄존한 남북 대치의 양단된 상황

속에서 오늘의 정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회장은 『우리 모두는 남북 통일을 갈망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전통을 살리면서 자유 민주주의 통일이 되어야 하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이상의 불행이 오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역설했다.

한편 구홍일 경우회장도 추도사를 통해 『우리 모두는 55년전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의 激戰의 현장 뱀사골 이 자리에 祖國과 民族, 그리고 自由民主主義를 위해 희생되신 7,344위의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고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모여 섰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남들이 목숨 바쳐 지키신 祖國 大韓民國은 지금도 統一을 이루하지 못한채 全世界에 하나 남은 分斷國으로 남과 北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회장은 『더욱 통탄스럽게도, 金日成의 적화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3만 7천여명이 戰死하고 10만 3천여명이 負傷을 당한 우리의 烈盟 美國과 유엔군의 總司令官으로서 民族의 恩人으로 영원히 尊敬해야 할 「더글라스 맥아더」장군을 民族統一을 가로막는 원흉으로 매도하고, 그 銅像마저 끌어내리려는 不純 勢力들의 해괴한 준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편 구 회장은 『그동안, 文鶴東 참전경찰유공자회 회장님을 비롯한 元老 참전경찰 선배님들의 열성과 노력으로 행정자치부, 보훈처, 전라북도, 남원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12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세월의 풍화 속에 잊혀져갈 激戰의 現場을 聖域化 하게 됨으로써 子孫萬代에 同



추도사를 하고 있는 구홍일 경우회장

族相殘의 비극적 戰爭이 남긴 歷史의 敎訓과 愛國心을 일깨워줄 것이며, 祖國을 위해 몸 바쳐 散華하신 故에 대한 崇慕의 聖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곳 충훈각은 6.25동란을 전후하여 지리산 공비토벌에 참가하여 장렬히 산화한 호국영령 7,344위의 넋을 추도하기 위해 지난 55년 5월 남원시 관한루에 건립되어 있던 것을, 지난 81년 6월 이곳 지리산 국립공원내 뱀사골에 원형대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전경찰유공자회 관계자는 『이곳 충훈각은 당국의 관심과 예산의 부족 등의 이유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초라한 모습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지난 2000년부터 우리 참전경찰유공자회가 이러한 실정을 통감하고 미력하나마 이곳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충절을 기리기 위해 매년 위령제를 거행하는 한편 경찰전사 책자의 판매 수익금을 활용하는 한편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관계당국에 예산을 요청하는 등 성역화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분과별 검토과제에 대한 論議

기획조정위, 1차 회의 개최



이용상 조직발전위원장 주관으로, 9월 29일에는 박희원 사업복지위원장 주관으로 각각 분과회의를 갖고 검토과제에 대해 논의를 가진 가운데, 同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우회 조직의 활성화와 그 발전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조직원 기획조정위원회가 최근 구홍일 경우회장과 부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 1차 회의를 갖고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을 갖는 한편 향후 위원회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구홍일 경우회장은 이규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조직발전에 대한 허심

탄화한 의견들을 개진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규식 위원장도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조직발전위원회, 안보치안위원회, 사업복지 위원회, 법규정비위원회 등 4개 분과별 검토과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에는

李相斗의 교통상식(41)



트라이브를 나갔다.

미금시까지지만 해도 꼭 막히던 도로는 대성리에 들어서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려 한가롭기까지 했다.

주위 경관을 돌아보며 톨루랄라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 앞서

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하자 이를 보고 앞차가 급정지했던 것이다.

다행히 앞차의 범퍼가 떨어져 나가면서 램프부 분이 깨지고 자신의 차도 범퍼만 손상되는 경미한 사고였다.

사고가 화물차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양은 공연히 화가 치밀었다.

경찰차가 곧바로 도착,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그런데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번 사고의 직접적 책임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고

중앙선 넘어 회전 하려고 정지하는 앞차를 뒤에서 추돌하면 사고책임은 추돌한 뒷차

가고 있는 승용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게 아닌가.

이양은 앞차의 정지를 뒤늦게 발견한 탓으로 빗겨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앞차를 추돌하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내려보니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화물차

전방주시를 소홀한 한 이양에게 있다는 경찰관의 설명이었다.

물론 화물차도 위반하였기 때문에 법규위반(중앙선침범)으로 스티커가 발부되고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했지만 이양은 순순히의 방식으로 우월한 주말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사업제휴업체 : L. J Business 031-986-7332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사업본부 02-2231-2145

전사경찰관 전국합동 위령제 追悼辭

- 플벌레 소리 외로운 산골에 깊이 잠드신 영령들이시여! -

오늘, 55년전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의 激戰의 現場 뱀사골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祖國과 民族, 그리고 自由民主主義를 위해 희생되신 7,344위의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고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모여 섰습니다.

더욱이 故를 먼저 떠나보낸 후 半百年이 넘는 긴 세월동안 한시도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遺族과 옛 戰友들이 함께 모여 처연한 마음으로 故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여기 플벌레 소리마저 외로운 산골에 깊이 잠드신 자랑스러운 영령들이시여!

남들이 목숨 바쳐 지키신 祖國 大韓民國은 지금도 統一을 이루하지 못한 채 全世界에 하나 남은 分斷國으로 남과 北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욱 통탄스럽게도, 金日成의 적화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3만 7천여명이 戰死하고 10만 3천여명이 負傷을 당한 우리의 烈盟 美國과 유엔군의 總司令官으로서 民族의 恩人으로 영원히 尊敬해야 할 「더글라스 맥아더」장군을 民族統一을 가로막는 원흉으로 매도하고, 그 銅像마저 끌어내리려는 不純 勢力들의 해괴한 준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령들이시여!

오늘날 우리나라가 戰爭의 廢墟를 딛고 세계에 우뚝 선 大韓民國으로 國力을 키울 수 있게 된 것은 남들의 고귀한 희생이 반석이 되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文鶴東 참전경찰유공자회 회장님을 비롯한 元老 참전경찰 선배님들의 열성과 노력으로 행정자치부, 보훈처, 전라북도, 남원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12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세월의 풍화 속에 잊혀져갈 激戰의 現場을 聖域化 하게 됨으로써 子孫萬代에 同族相殘의 비극적 戰爭이 남긴 歷史의 敎訓과 愛國心을 일깨워줄 것이며, 祖國을 위해 몸 바쳐 散華하신 故에 대한 崇慕의 聖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한 우리들은 남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自由 大韓民國을 굳건히 守護하고 영원히 繁榮하는 祖國이 되도록 故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국가보훈처, 전북도청, 경찰청, 남원시청, 경찰서 등의 관계관들과 원근 각지에서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과 각급 경우회장, 연로하신 참전회원님들, 특히 최석원 前 경우회장님을 비롯한 원로선배님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遺家族 여러분과 後孫들의 앞날에 하늘의 크신 祝福이 임하기를 간절히 祈願 드립니다.

護國의 英靈들이시여 무더 편히 잠드소서!

祖國과 民族은 남들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몸 바치셨는지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2005. 9. 27.

大韓民國在鄉警友會
中央會長 具弘奎 삼가 고함

강원경우회 會館 마련

지상 5층에 건평 220평, 오는 10월 10일 입주

강원경우회가 숙원사업인 경우회관을 마련했다.

강원경우회가 이번에 마련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총대지 110평, 건평 220평으로 현 춘천경찰서 후편 강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주차공간도 넓은 춘천의 신촌 강남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강원경우회는 급매로 나온 이 건

물을 5억 3천만원에 구입했는데, 지난 9월 6일 1억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는 한편 오는 12월 24일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한편 강원경우회는 이번에 마련한 회관을 2층 일부만 경우회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세를 놓아 부족한 구입자금과 강원경우회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원로 경우님들에게 현장을 확인

시켜 드렸더니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흔쾌히 좋다고 하셔서 고민 끝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는 최인철 회장은 『구홍일 중앙회장께서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 이전하신 경영마인드를 본받아 고정관념을 깨고 이번 일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으며, 발전하는 강원경우회, 생동하는 강원경우회로 만들어 나갈 작정』이라고 밝혔다.

— 기대효과 —

- 자연보호(토양오염방지 등)
- 자원재활용(카트리지 재사용, 알루미늄, 플라스틱, 토너가루)
- 외화절감(수입대체효과)
- 전·현직 경찰관 기금조성
- 불우 청소년 장학금 지원